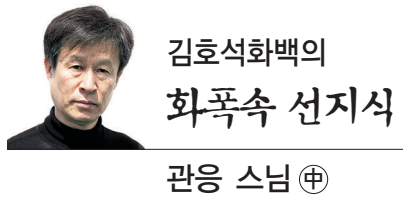


깊고 따뜻함... 화심 불리일으켜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음 스님 ㊦

“조선 초상화 중 제일 좋은 작품을 꼽는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관음 스님이 물었다. 나는 평소 생각대로 안향, 이항복, 송시열, 허목, 이재 초상, 윤두서 자화상 등을 꼽았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 이유를 물으셨고,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다. 스님은 자신의 생각도 같다고 하시고 대화는 화상찬까지 화제가 옮겨갔다. 스님께서 그림에 대한 관심과 감식이 높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관음 스님과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냈다. 스님의 따뜻한 말과 배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자연히 스님의 말씀과 생활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사유를 조금이나마 공유하자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형식적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스님의 상호는 자비롭고 순일한 표정이 특징이었다. 긴 수염도 빼놓을 수 없었다. 머리는 요철이 없이 둥글고 완만했지만 뒤는 납작했다. 머리카락은 적고 특히 양쪽 이마 끝이 민머리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가늘며 파상문(波狀紋)이었고 이마는 넓어서 환했다. 하얗고 긴 눈썹은 바람결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로 인해 스님은 신선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림에서는 눈썹의 형태와 귀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곳은 유전적 요소를 가장 짙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혈통과 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스님의 눈은 크고 또렷하며 동공의 색도 검고 윤곽선이 분명했다. 쌍꺼풀이 있는 눈은 맑은 인상을 풍겼고, 눈빛은 맑고 고요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반복되고 굴절도가 시시각각 변모했다. 순일한 겉모습과 달리 스님의 내면에는 불같은 열정과 단호함이 서려있었다.

스님의 코는 단단하고 야무졌고 코 선은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입은 일자 형태로 가지런했으며 입술은 작고 아담해 신념과 의지가 강한 듯 보였다. 수

염은 턱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독특하게도 귀 아래로 길게 나 있었다. 수염 굵기는 가늘고 곧았지만 약간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수염의 형태와 상태는 스님의 순하고 어진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스님의 얼굴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보다 좌측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간적인 솔직함이 드러났다. 스님의 왼쪽 뺨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신경이 발달해 있었다. 이 신경 세포를 통해 감정의 미묘한 흔들림을 포착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린 초상화 중 특히 관음 스님 진영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한다. 아마 스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알게 된 그분의 생각과 외형이 그림 속에 깃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스님과의 대화는 늘 영상 너머에 있는 그림자를 읽게 했다. 스님의 배려 역시 화심을 불리 일으켰다.

나는 초상화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업을 한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의인, 외길로 뜻을 이룬 사람, 존경스런 인물, 미술사적 도전 등의 이유가 아니면 붓을 들지 않는다.

먼저 진영 작업은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상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요소를 포착하는 것은 화가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투철하지 않거

봄처럼 도타웠던 관음 스님

순일한 표정 속 단호함 깃들여

스님 존경하는 마음 담아

표현한 진영 '압권' 평가받아

나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개방하지 않는다. 화가는 인물의 겉모습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전신(傳神)과 섬세한 감정의 떨림까지 간파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과거 사진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다.

다음으로 나는 진영 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이 발생해야 그림으로 옮긴다. 초상화는 대상 인물이 돌아가신 뒤 진영각에 모실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업 내내 나는 표현 대상자에 대한 공부는 물론 그분의 분신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진영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작업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후의심이 들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대상자의 정신적 깊이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작업자는 자신을 검증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작업 내내 일어나는 날카로운 긴장감은 화가의 숙명이다.

이처럼 그림을 요청받을 때는 반드시 모델을 서줄 것을 주문함은 물론, 작업도중에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한다. 진영 작업은 그려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곧 그림이다.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결과가 성공적이라 해도 화가로서는 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관음 스님 진영 작업을 할 때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거짓말처럼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풀렸다.



관음스님, 174X114cm, 종이에 수묵채색, 1995년, 작가소장. 진영 작업은 그려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곧 그림이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관음 스님 그림을 그리면서 정성과 진심을 다 했다. 그 덕분에 미술 사학자와 미술평론가로부터 관음 스님 그림은 내 그림 중 최고 득의작(得意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 작품을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그분을 기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 사육을 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림을 보여 준 뒤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진영을 부탁한 측에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그려 달라는 전갈이 온 것이다. 재작업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작품은 완성됐다. 주문자는 새로 그린 작품에 만족했다. 1년여 간 지난한 흔적이 배어있는 작

품이 작가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불합격의 수치가 아니라 작가를 생각한 또 다른 배려 방식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를 고맙게 생각한다. 처음 그랬던 스님은 대상에 대한 긴장이 아직 살아있는 법이다. 이 긴장감은 일체의 헛치레가 빠진 작가의 생생한 혼이 담긴 결정체다. 그림은 기교나 기법 그리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뜻을 전달할 때 힘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집에 보관된 관음 스님의 첫 진영은 내가 다른 스님의 진영을 부탁 받을 때 어떻게 작업에 임해야 하는가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관음 스님은 여전히 내 그림 속에 살아계신다.



선-산빛이 가늘게 어깨를 눌렀다. 191X97cm, 종이에 수묵, 1997년, 작가소장. 작업은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상에 대한 관찰의 힘도 중요하지만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대상자만의 특정 요소를 포착하는 것은 화가의 몫이다.



묵선, 60.5X51cm, 종이에 수묵, 1995년, 적지사 중앙미술장. 정성과 진심을 다했다. 그 덕분에 미술 사학자와 미술평론가로부터 관음 스님 그림이 내 그림 중 최고 득의작(得意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 작품을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그분을 기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 사육을 버리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이 받은

대원문재현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 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驗話),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항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탐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번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번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문재현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도량석, 종송
 - 예경: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관공: 삼보통칭, 상단 중단 관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불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사식, 구병사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 사 물: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제의식 등
- 강 주: 석범은 스님
- 개 강
 - 매주 목요일(수시모집)
 - 수업시간: 초 급 과 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입학자격: 중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충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리 9길 28(북성리 1095)
 -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충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상시모집
- 문 의 처: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적하수오

- 하수오 된장: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서릉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하수오 남서